

退溪學派 文集所載 箴銘類의 修己指向의 性格

김인철*

|| 차례 ||

1. 머리말
2. 道統의 確認과 自任
3. 自己修養의 綱目과 그 推移
4. 맺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퇴계의 『聖學十圖』가 담고있는 自己修養의 학문적 특성이 그의 제자와 後學들에 의해 어떻게 계승·발휘되어졌는지 퇴계학과 학자들의 文集에 실려있는 箴銘類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道統觀과 관련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퇴계학과 학자들의 자기수양의 변모양상이 그것이다. 전자는 堯이하 孟子로 이어지는 儒學의 기본적인 道統觀念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性理學을 중심으로 하는 機軸의 변화가 있었으며, 후자는 性理學 수용의 爛熟度에 따라 그 中心教義가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구체화·세분화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요약되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그것이 瑣瑣한 것에 埋沒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학문의 생활화·자기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지적하였다.

주제어 退溪, 『聖學十圖』, 箴銘類, 道統, 自己修養, 性理學, 具體化, 細分化

1.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退溪는 학문과 진리에 대한 敬畏心을 가슴에 품고 일생동안 시종일관 求道者의인 자세로 자기 수양과 그것의 도덕적 실천을 통해 儒學의 理想的 理念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던, 朝鮮의 대표적인 道學者요 性理學者라고 할 수가 있다. 유학의 이상적 이념이란 흔히 修己治人이라는 말로 압축되어지지만, 퇴계에게 있어서는 治人보다는 修己의 측면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퇴계가 사상적으로 治人의 측면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취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治인에 앞서 그 根柢로서 개인의 道德的 修養과 實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퇴계는 修己의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퇴계의 '대표적 저술의 하나'¹⁾인 『聖學十圖』가, 어린 宣祖에게 聖王이 되기를 바라는 誠心에서 제작해 바친 것이면서도, 治國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보다도 敬思想을 중심으로 하여 爲己之學의 각도에서 자기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聖王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 즉 聖人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聖學十圖』의 '聖學'은 '聖王이 되게 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聖人이 되게 하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聖學十圖』는 비록 퇴계가 왕에게 올린 것이기는 하지만 기대 가능한 독자로는 왕뿐만 아니라 당대의 선비 또는 성리학자²⁾는 물론 제자나 후대의 학자들까지도 포함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퇴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시된 性理學 聖學思想의 여러 요소들이 당대의 학자를 포함해서 제자와 후학들에 의해

1) 윤사순, 「이황의 『성학십도』, 『圖說로 보는 한국 유학』, 예문서원, 2000, 89쪽.

2) 윤사순, 전계논문, 129쪽.

어떠한 모습으로 계승·발휘되어졌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요청되어질 수 있을 터인데, 본고는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준비되어진 것이다. 즉 退溪學派 文集 所載 箴銘類를 중심으로 『聖學十圖』가 담지하고 있는 자기수양의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수용·계승되고 있는지 검증해 보고, 그를 통해 퇴계학과 학자들의 修己指向의 학문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箴銘類를 주 검토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聖學十圖』에 「西銘」, 「敬齋箴」, 「夙興夜寐箴」과 같이 箴銘類가 비중있게 취급되어져서이기도 하지만, 작자나 독자에게 삼가고 경계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箴銘의 문체상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퇴계학파의 修己의 性格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다른 문체에 비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이다.³⁾

2. 道統의 確認과 自任

道統이란 堯·舜·禹·湯·文王·武王·周公·孔子·曾子·子思·孟子등으로 전해져 내려온 儒學의 學問의 傳統을 가리키는 말인데, 宋代 性理學(程朱學)은 孟子이후 끊어졌던 그러한 유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중요한 학문 목표의 하나로 표방하였던 까닭에 성리학을 달리 道學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퇴계학파가 유학의 正脈으로 간주하는 도통은 성리학의 도통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그러한 도통의 확인은 일단 자기 학문의 성격과 정체성을 선명히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비록 학파상으로는 晦齋 李彥迪(1491~1553)의 학통을 계승하고 있으나, 鶴川 朴承(1520~1577)의 다

3) 본 논문에서는 『訥齋集』(安東大學校 圖書館本)과 安東大學校 退溪學 研究所에서 펴낸 『退溪學資料叢書』 1책~60책까지에 실려있는 箴銘작품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작가와 문집 그리고 해당 작품에 대해서는 논문 뒤에 제시한 도표를 참고 바람.

음과 같은 「座右銘」은 퇴계 당대의 도통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理爲人性	리가 사람의 본성(人性)이 되었으니
率性爲道	본성을 따르는 것이 道가 되고
道本乎心	道는 마음에 뿌리두고 있는데
其心微妙	그 마음은 미묘하기만 하구나
堯授執中	堯임금 舜에게 中道를 잡으라 하셨고
舜益精一	舜임금은 '정밀하고 한결같음'을 더하시었네
湯慄文翼	湯임금 두렵게 여기시었고 文王은 광경스러웠으며
姬思孔述	周公은 三王의 일을 겸하고자 하였고 孔子는 傳述하시었네
顏樂曾惟	顏子는 즐거워하였고 曾子는 '예'하고 바로 응답하였으며
思憂孟淑	子思는 걱정하였고 孟子는 私淑하였네
秦坑雖慘	秦나라의 焚坑儒 비록 참담했으나
宋天必復	宋나라때 회복하기를 기필하여
濂洛關閩	周濂溪, 二程子, 張橫渠, 朱子가
相承而作	서로 이어 일어나더니
爰及東壤	마침내 우리 나라에까지 미쳐
圃晦斯續	圃隱, 晦齋 두 선생 이를 이으시었네
道不可亡	道가 없어져서는 안될 것이니
復誰之屬	누 다시 그것을 이을 것인가
亦非高遠	그 또한 높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莫曰難行	행하기 어렵다 말하지 말라
希聖希賢	聖人되기를 바라고 賢人되기를 바라는 것
在心之誠 ⁴⁾	마음 속의 誠實함에 달려 있다네

위 「좌우명」의 전체적인 짜임새는 道學의 뿌리가 하늘에 근원하고 있음

4) 朴承: 『鶴川集』 「座右銘」, (『退溪學資料叢書』, 安東大 退溪學研究所편.) 11책 411쪽. (이하 총서에 들어 있는 문집의 경우 출판사항은 생략하고 책수와 쪽수만을 11-411의 형태로 제시하기로 한다.)

을 밝히고 있는 『中庸』首章의 첫 두 구절을 전거로 하여 자기 학문의 근본 성격을 存心養性의 心性論的인 것으로 규정하고(1-4句), 그것의 전승양상을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함축적으로 제시한 후(5-16句), 그러한 전통의 계승이 결국 자기 마음의 誠實性을 확보하는 데에 달려있다고(17-22句) 自任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 가운데 도학의 연원과 전승을 간명하게 요약, 제시하고 있는 중간 부분, 특히 堯에서 孟子에 이르기까지 각 인물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5-10句)은 이 글의 가장 정채로운 대목으로 꼽을 만 하다. 堯가 舜에게 禪讓하며 ‘진실로 그 中道를 잡으라(允執其中)’⁵⁾는 한마디 말만을 傳授하였는데, 舜이 禹에게 선양하며 ‘人心은 위태롭고 道心은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中道를 잡을 것이다.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⁶⁾라고 세 마디 말을 더한 사실을 근거로 堯·舜은 각각 한 구절로 묘사하였는데 비해, 다른 인물들은 한 구절에 둘 씩 함께 하여 그것과 차별화시키면서⁷⁾, 湯이하 孟子까지 각 인물의 특징적인 면모를 경전에 근거한 한 글자로 정확히 압축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堯·舜·禹의 선양과는 달리 征伐을 통해 천하를 안정시킨 湯으로 부끄러워하고 혹 上下에 죄를 짓지나 않았는지 두렵게 여겼던 湯⁸⁾과 언제나 조심하고 공경스러웠던 文王⁹⁾을 慄과 翼으로,

5) 『論語』「堯曰」편, ‘堯曰 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 允執其中, …’

6) 『書經』「大禹謨」편,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

7) 혹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禹가 빠져 있는 점을 들어 ‘堯授執中’에 받는 대상인 舜이 이면에 잠재되어 있고 ‘舜益精一’에도 역시 받는 대상인 禹가 내함되어져 모든 구절이 두 인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럴 경우 舜이 중복되고 그에 따라 禹역시 중복되더라도 湯과 더불어 나타나야 할 터인데 文面에선 그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禹의 경우는 舜에 포함시키면서 생략했다고 보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한다.

8) 『書經』「仲虺之誥」편, ‘成湯放桀于南巢, 惟有慙德曰, 予恐來世以台爲口實, …’, 「湯誥」편, ‘… 茲朕未知獲戾于上下, 慄慄危懼, 若將隕于深淵, …’

禹·湯·文王·武王의 四事를 兼施하고자 하였던 周公¹⁰⁾과 옛것을 믿고 좋아하여 創作하지 않고 傳述만 하였던 孔子¹¹⁾를 思와 述로 각각 簡要하게 적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安貧樂道하였던 顏子¹²⁾와 魯鈍한 자질로 眞積力久하여 孔子의 학문을 이은 曾子¹³⁾, 道學의 전승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中庸』을 지은 子思¹⁴⁾, 子思의 門徒를 통해 孔子의 道를 배워 자신을 學하게 한 孟子¹⁵⁾를 樂·惟·憂·淑 등으로 直切하게 지적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刻印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맹자이후 끊어진 도통의 계승을 표방하며 성리학을 발흥, 종합시킨 宋四子, 즉 周敦頤(1017~1073), 程顥(1032~1085)·程頤(1033~1107) 형제, 張載(1020~1077), 朱熹(1130~1200)와 '東方理學의 始祖'로 일컬어지는 圃隱 鄭夢周(1337~1392), '太極'개념을 두고 忘機堂 曹漢輔와 최초의 철학적 논쟁을 벌인 晦齋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략하다는 느낌이 짙은데, 이것은 그들의 중요성이 덜해서라기보다는 鶴川의 개인적인 관심도와 당대 성리학의 爛熟度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 성리학의 本源으로서 유학의 경전을 중시하는 학천의 학문태도와 성리학의 주요 인물에 대해 適宜하게 辨別의 特性을 摘出하기에는 당대의 성리학의 성숙 정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점

9) 『詩經』「大明」편, '…維此文王, 小心翼翼, 昭事上帝, 聿懷多福, 厥德不回, 以受方國…'

10) 『孟子』「離婁章句下」, '…周公思兼三王以施四事, 其有不合者, 仰而思之, 夜以繼日, 幸而得之, 坐以待旦.'

11) 『論語』「述而」편,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12) 『論語』「雍也」편,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回也.'

13) 『論語』「先進」편, '柴也愚, 參也魯, 師也辟, 由也喭.', '里仁」편,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14) 朱熹, 『中庸章句』, '中庸, 何爲而作也. 子思子憂道學之失其傳而作也…'

15) 『孟子』「離婁章句下」, '…予未得爲孔子徒也, 予私淑諸人也.'

은 다음과 같은 虎溪 申適道(1574~1663)의 「西壁銘」과의 대조를 통해서도 쉽게 간취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三極既立	하늘과 땅 사람의 도가 확립됨에
千聖授受	많은 聖人들 그것을 주고 받으시었네
畫八義皇	伏羲 황제 八卦를 그리셨고
精一勳華	舜임금께서 ‘정밀하고 한결같음’에 힘쓰셨으며
夏禹祇承	夏나라의 禹임금 공경히 받들고
殷湯聖躋 ¹⁶⁾	殷나라 湯임금 聖스러움이 날로 오르시었네
以是文武	文王과 武王 이러한 것을
接夫周召	저 周公·召公에 잇게하니
詔後宣尼	孔子께서 後世에 가르침을 드리웠네
得宗曾子	曾子는 그 宗旨를 얻어
再傳思聖 ¹⁷⁾	子思에게 거듭 전하더니
既通孟軻	孟子 그 道에 通하였다네
胡烈秦火	秦의 焚書 어찌 그리도 세차던지
乃雜漢治	마침내 漢나라때 잡박해지더니
理極必反	이치는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 오는 법
渾淪重開	혼돈스러운 세상 다시 열리었다네
建圖茂叔	周茂叔이 「太極圖說」을 지었고
好學程氏	程伊川이 「顔子所好何學論」을 지었으며
訂頑橫渠	張橫渠가 「訂頑」을 짓고
皇極堯夫	邵堯夫 『皇極經世書』를 지어서라네
延平繼開	李延平이 이어 깨우쳐줌에
紫陽集大	朱子가 집대성 하였으니
講明斯道	이 道를 講磨해 밝혀
煥然千載 ¹⁸⁾	千年을 환히 비추리로다

16) 『詩經』 「大明」 편, ‘…湯降不遲, 聖敬日躋, 昭假遲遲…’

17) 이 聖자는 子思가 孔子의 후손임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다.

18) 申適道; 『虎溪集』 「西壁銘」, 24-250~251.

퇴계의 及門弟子였던 悔堂(申元祿:1516~1571)의 손자이기도 한 호계의 위 글은 학천의 「좌우명」처럼 도통의 전수와 계승의 자임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천의 「좌우명」과는 다르게 중국의 경우 도학의 始原을 堯보다 앞선 伏羲氏로 잡고 禹를 거론하면서 堯와 顔子를 생략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일체 언급이 없이 宋代 성리학자의 대표적인 저술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의 계승을 다짐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 있다. 두 글의 이러한 차이점은 물론 학천과 호계의 학문성향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인의 활동시기가 시간적으로 반세기 이상 차이가 나는 까닭에, 그로 인한 성리학의 학문적 성숙과 사회적 존송의 심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은 위 글에서 王文 이하 孟子까지의 도통 기술이 주로 「中庸章句」序文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朱子'가 集大成하였다(紫陽集大成)라는 구절로 도통에 대한 기술을 마감하고 있는 점에서 쉽게 感得되어지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학천의 「좌우명」과 호계의 「서벽명」은 道統의 傳承과 自任이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시대적 차이에 따라 어떻게 무게 중심이 이동하였는지 그 변화 양상을 읽을 수 있는 相補的인 性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道統의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 異端에 대한 분별과 경계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도통의 확인이 자기 학문의 正統性을 지키기 위한 자각이라면 이단에 대한 분별과 배척은 자기학문의 純粹性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 둘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操省堂(金澤龍:1547~1627)의 다음과 같은 「座右銘」이 좋은 참고가 된다.

학자의 병풍은 高遠한 것에 힘쓰는데 있다. 내 일찍이 潛室 陳氏의 '아래로 人事를 배우면 자연히 위로 天理에 통달하게 된다. 下學工夫를 하지 않고 막 바로 上達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釋氏의 깨달음에 관한 言說들이 그러한 것이

다. 우리 儒者의 경우는 一分의 學問을 하면 一分의 장애를 같이 없애 마음이 一分만큼 道理를 알 수 있게 되고 二分의 學問을 하면 二分의 폐단을 같이 없애 마음이 二分만큼 道理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초통초통해진 것을 따르며 밖으로 내달리지 않는다면 마음 전체가 훤히 밝혀지고 찌꺼기가 조용히 사그라지리니, 그것이 바로 上達의 境界인 것이다.'라는 말을 사랑했거니와, 그 말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高遠한 것을 힘쓰는 자의 경계로 삼을 만 하다.¹⁹⁾

異端에 대한 경계는 이미 孔子가 이단을 專治하면 해로울 뿐²⁰⁾이라고 하였고 孟子 역시 자신의 辯論은 楊·墨을 막고 先王之道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²¹⁾고 하여 그 폐해를 지적한 바가 있거니와, 성리학에 있어서는 그 경계 대상이 老·佛 특히 佛敎(禪)에 집중되어 있다. 불교의 교리가 上達 즉 形而上學의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近理한 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孔子의 上達의 경지(從心所欲不踰矩)가 志于學 이후 立·不惑·知天命·耳順이라는 成章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예증하고 있듯이, 유학(성리학)에서는 敬을 통해 그러한 초월적인 부면을 아우르면서도(居敬涵養) 그것을 平實한 일상생활 속의 윤리를 끊임없이 탐구·실천하는(格物致知) 가운데 자연스럽게 도달하려고 한다. 이에 비해 禪 佛敎에서는 下學工夫의 과정이 없이 막바로 上達境界만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설사 上達이 가능하다 할 지라도, 下學의 기반이 없는 까닭에 上達 그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공허한 것일 수 밖에 없게 된다. 程明道가 '釋氏는 오직 上達만을 힘쓰고 下學이 없으니 그렇다면 그

19) 『操省堂先生文集』 「座右銘」, 10-217. '學者之患, 在務高遠. 嘗愛潛室陳氏語曰, 下學人事, 自然上達. 若不下學工夫直欲上達, 則如釋氏覺之之說是也. 吾儒一分學問, 則磨得一分障礙去, 心裏便見得一分道理, 有二分學問, 則磨得一分障礙去, 心裏便見得二分道理, 從此惺惺, 恁地不令走作, 則心裏統體光名, 渣滓靜盡, 便是上達境界, 詳味此言, 可爲務高遠者之戒.'

20) 『論語』 「爲政」편. '子曰, 攻乎異端, 斯害也已.'

21) 『孟子』 「滕文公章句下」, 9장 참고.

上達處인들 어찌 옳은 것이 있겠는가. 처음부터 上.下가 서로 連屬되지 않고 단지 間斷됨이 있을 뿐이니 이는 道가 아닌 것이다.'²²⁾라 하여 불교를 비판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초학자나 배움이 아직 깊고 굳지 못한 단계에서는 上達에 대한 조급한 욕망과 기대로 인해 자칫 하학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위 글은 바로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작자 操省堂의 深重한 自警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좌우명」앞에 다음과 같은 서문이 병기되어 있는데 그 말이 眞率하면서도 親切한 맛이 있어 반복해 음미해 볼 만하므로 제시해 두기로 한다.

내 일찍이 '上君子는 풍모와 기상이 엄정하고 뛰어나기가 마치 눈 속의 외로운 소나무처럼 늑늑히 홀로 빼어나야 할 것이며, 또 둥그러니 썩을 달이 조용히 홀로 떠 있어도 차가운 빛이 푸른 빛을 뿜어내며 한 점의 작은 찌기도 없는 것 같아야 할 것이다' 말하고는 그것을 座右에 적어 놓고 스스로 노력하였다. 하루는 글을 읽다가 벽 사이의 틈을 돌아보고는 일어나 생각하기를 '살피봄이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내 마음의 超脫迥徹함이 진실로 비할 바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저 그것만으로 마음으로 삼고 學問工夫로 채움이 없다면 그 폐단이 禍禪의인 뜻으로 쏠려갈 것이니, 이것(즉 學問工夫 - 필자)으로 마음을 세우고 『周易』의 이른바 '敬으로써 안을 끈게 하고 義로써 밖을 반듯이 한다'는 것으로 스스로 勉勵하느니만 못할 것이다. 朱子가 말한 바 '이치를 窮究하여 앎을 지극하게 하고 자신을 반성하여 그 실질을 실천하여서 보존하고 있을 적에는 비고 고요하되 발현할 적에는 과감하고 확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내 마음의 근본 터전으로 삼아야 옳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그것을 글로 써서 座右銘으로 삼노라.²³⁾

22) 『近思錄』권13, '釋氏…… 惟務上達而無下學, 然則其上達處豈有是也, 元不連屬, 但有間斷, 非道也.' (學民文化社, 1995.) 438쪽.

23) 『操省堂先生文集』, 「座右銘」, 10-216. '余嘗有言曰, 士君子風度骨格, 凝遠挺出, 當如雲裏孤松, 凜然獨秀, 又如一輪霜月, 澹然獨舉, 寒光湧碧, 無一點纖滓, 因書座右用以自勵, 一日讀書顧視壁間, 因以起思曰, 審如是矣, 吾心之超脫迥徹, 固無

3. 自己 修養의 綱目과 그 推移

퇴계학과 학자들이 自己省察과 警戒의 자료로 삼기 위해 지은 箴銘들의 성격은 크게 居敬(尊德性)과 窮理(道問學)의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學者의 工夫는 오직 居敬과 窮理 두 가지 일에 달려있고,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發明하는 것이다. 窮理할 수 있으면 거경 공부가 날마다 더욱 진전되고 거경할 수 있으면 窮리 공부가 날마다 더욱 정밀해질 것이다.'²⁴⁾라는 朱子の 말처럼, 양자가 서로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相資相依하는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퇴계학과 학자들의 문집 속에 등장하는 多岐한 모습의 箴銘류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각 작품들의 主旨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연구자의 안목에 따른 선택적인 분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필자는 퇴계의 급문제자였던 訥齋(金生溟:1504~1578)가 『대학』에 근거하여 지은 元朝四箴의 네 항목 중 格物致知, 正心修身, 訥言慎行을 중심축으로 하여 다른 학자들의 작품 내용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퇴계학과 학자들의 箴銘류에 나타난 自己修養의 樣相과 推移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먼저 格物致知의 경우이다.

心外無理	마음 밖에 이치 없고
理外無物	이치 밖에 사물 없으니

比矣, 若徒以此爲心而無學問工夫以實之, 其弊或流於禪底意思, 不若以此立心, 而以易所謂敬以直內義以方外者自勉. 以朱子所謂窮理以致其知, 反躬以踐其實, 其存之也虛而靜, 發之也果而確, 爲此心根基田地, 可也. 因書用爲座右銘.

24) 『心經』, 『尊德性齋銘』, '又曰, 學者工夫, 唯在居敬窮理二事, 此二事互相發, 能窮理則居敬工夫日益進, 能居敬則窮理工夫日益密.' (학민문화사 영인, 1998.) 310~311쪽.

致吾之知	나의 앎을 지극히 하는 것
在物之格.	物理를 궁구하는 데에 달려있어라.
天地生成	천지가 만물을 生成함에
魚鳥潛飛	물고기와 새들이 잠기고 나는 것이니
日乾夕惕	종일토록 힘쓰고 저녁에 두려워하듯이 하여
析縷分毫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분석해 나가면
心源活潑	마음의 근원이 活潑하게 되어
達道達德.	道에 이르고 德에 이르를 것이네.
格致之功	사물의 이치 궁구하여 앎을 지극하게 하는 노력이
誠正之則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법칙이 되니,
是非曲直	옳고 그름, 굽음과 곧음
妍媸亭毒	아름다움과 추함, 외형과 바탕 등을
精以察之	정밀하게 살펴
自強不息 ²⁵⁾	스스로 노력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朱子가 『大學』의 편차를 재조정하면서 '補亡章'을 지어 八條目的 첫머리로 삼았던 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주자학에 있어 格物致知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기능은 실로 多大한 면이 있다. 宇宙 안의 그 어느 것도 格物의 대상에서 배제되지않는 영역의 廣大함도 그러하지만, 목표로 하는 격물의 심도에 있어서도 巨視的 차원에서의 外的 現象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微視 次元의 內的 原理, 즉 所以然之故(所以然之理)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위 잠은 바로 그러한 주자학의 격물치지에 대한 내용을 요령있게 담아내고 있다. 특히 5·6구는 道의 광대한 작용(費)을 통해 道體의 은미함(隱)을 드러내고 있다는 『中庸章句』12장의 引詩²⁶⁾를 약간 변형시켜 격물치지가 포괄하고 있는 대상의 폭과 깊이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11·12구는 그러한 격

25) 金生漢:『訥齋集』권1, 「元朝四箴:格物致知」.(安東大學校 圖書館本)

26) 『中庸章句』12장. '詩云, 鸞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물치지가 誠意·正心과 같은 내적 수양의 準則이 되고 있음을 선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肯綮處로 간주될 만하다.

이러한 격물치지에 대한 중요성은 이후 퇴계학파의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인, 강조되어지는데, 그것은 격물치지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가 아니라 주로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讀書'의 의의나 방법, 효과 등을 일깨우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聖賢이 지은 經傳은 마음을 가라앉혀 의미를 탐구하고, 諸子와 史書들은 반복해 비교 검토하여 무르녹아 폭 젖어들게 되면 생각에 의심함이 없게 되리라. 근본이 이미 확립됨에 곧 文辭에 장형되어져 글은 반드시 뜻을 전달하고 말은 반드시 조리가 있으리라...(후략)...27)

靜坐를 익히고 重厚함을 배워 터전으로 삼고 책을 읽어 이치를 밝혀서 뜻을 도울 것이다. 바라건대 만일 들음이 있어 혹 조금이라도 터득함이 있게 된다면 원하는 뜻을 마치게 되리니 저녁에 죽은 들 무엇을 근심하리오.28)

이치는 저절로 밝혀지지 않고 앎은 저절로 지극해지지 않으니, 앎이 지극해지고 이치가 밝혀지려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옛 사람이 책을 지어 이 이치를 깃들여 놓았고 그것을 읽는 데엔 법이 있으니 거칠게 허술히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몸가짐을 엄숙히 하여 보는 것 듣는 것을 그치고 이에 方冊을 펴서는 똑바로 손을 드리우고 꿇어 앉아 글자마다 풀이를 찾고 구절마다 그 뜻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후략)...29)

27) 權益昌:『湖陽集』「修業箴」, 21-377. '聖經賢傳, 沈潛涵泳, 諸子百史, 反覆參訂, 融貫浹洽, 思到無疑. 本既立矣, 卽驗于辭, 文必達意, 言必造理....'

28) 柳元之:『拙齋集』「元日箴」, 33-360. '習靜學重, 以爲田地, 讀書明理, 以益其志. 庶幾儻聞, 或有少得, 志願畢矣, 夕死何憾.'

29) 張緯恒:『臥隱集』「讀書箴」, 49-333. '理不自明, 知不自至, 知至理明, 讀書而已. 古書之作, 以寓斯理, 讀之有法, 不可草次. 齊心肅體, 斂聽收視, 爰啓方冊, 兀然擊踞, 字索其解, 句求其義....'

위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잠명의 내용이 일상 속의 실천과 밀접하게 맞물리는, 보다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은 비단 격물치지 항목뿐만 아니라 正心修身이나 訥言慎行的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 앞서 도통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리학의 中心 教義들이 사회적인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학자들이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구현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자연스러운 변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正心修身의 경우이다.

虛靈是心	텅 비고 靈活한 마음은
主宰于身	몸을 主宰하는 것으로,
情性之本	情性の 근본이요
義理之源	義理의 근원이며
危微之機	위태로움과 은미함의 기틀이요
聖狂之端	聖人과 狂人이 나뉘어 지는 단서이니,
視聽言動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기를
非禮則勿	禮가 아니면 하지말라.
改過遷善	허물을 고쳐 善으로 옮겨가고
懲忿窒慾	성냄을 징계하고 욕심을 막으며
正誼明道	의로움을 바르게 하여 道를 밝힐 뿐
不計功利	功과 利를 따지지 말라.
行有不得	행하여 얻지 못함이 있거든
反求諸己	돌이켜 자신에게서 구하며
閑邪存誠	사특함을 막고 성실함을 보존한다면
體胖氣(和), ³⁰⁾	몸이 퍼지고 기운이 화평하리라.

위 잠은 『대학』의 八條目 중 正心·修身을 제목으로 하였으면서도 그

30) 金生溟: 『訥齋集』 권1, 「元朝四箴: 正心修身」. (安東大學校 圖書館本)

내용은 『大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학』에서는 忿
 懣·恐懼·好樂·憂患의 감정에 치우쳐 마음의 中正함을 잃거나, 親愛·
 賤惡·畏敬·哀矜·赦惰의 대상에 대해 편벽되어 몸이 닳여지지 않는 상
 황을 제시함으로써 소극적, 부정적인 모습에 의해 正心·修身의 의미를 일
 깨우고 있는데 비해, 위 잠은 주자학의 心에 대한 핵심적인 定義와 수신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 등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긍정의 관점으로 일관되어져있
 는 것이다. 이 점은 위 글이 一身을 主宰하고 性情을 統括하며 義理 流出
 의 根源으로서의 마음이 함유하고 있는 영활한 능력과 그 마음의 正·不正
 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결과에 대해 경계하고(1-6句), 뒤이어 그러한
 마음을 바르게 하여 修身하는데 있어 지침이 될만한 주요 실천 항목들을
 제시한 후(7-15句), 그를 통해 얻게되는 功效를 비유적으로 언급하고(16
 句) 있다는 점에서 쉽게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시되어진 修身의
 실천 항목 가운데 7·8·16句는 퇴계가 평소 神明처럼 믿고 嚴父처럼 경
 모하였다는 『心經』에 편입되어져 있고, 9-14句까지는 『聖學十圖』가운데
 퇴계 스스로 도표화한 주자의 「白鹿洞規」篤行條에 들어 있는 항목인 점
 을 환기해 보면, 위 잠은 正心修身의 실천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적극적,
 긍정적 시각에서 적의하게 간추려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正心修身이 자기 수양과 관련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보면 퇴계학과 학
 자들의 이와 관련된 잠명류의 작품이 양적으로 적지 않으리라 예측할 수 있
 겠는데,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惺齋(琴蘭秀; 1530~
 1604)의 「座右銘」과 「心戰箴」, 「省察箴」, 「防意如城箴」, 「莫見乎隱箴」,
 「防意箴」, 「窒慾箴」, 「存心箴」, 「獨行不愧影箴」, 「獨寢不愧衾箴」, 「自
 新箴」, 「新春十箴」중 첫 수, 「制養齋箴」³¹⁾ 등은 이 항목으로 분류되어질

31) 惺齋의 「座右銘」아래 제시되어진 작품들의 작자와 문집에 대해서는 논문 뒤의 도표
 를 참조 바람.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그 제목만으로도 主旨의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제목 자체가, 놀재의 경우에 비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역시 후대로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실천성·일상성의 현상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참고 삼아 그 일부를 제시하기로 한다.

사람의 품성 같지 않아 어리석은 이도 있고 현철한 이도 있네. 진실된 君子는 안이 銀같고 밖은 鐵같은데, 아! 저 小人은 안이 鐵같고 밖은 銀같구나. 銀은 비록 희지만 땅에 묻으면 흐려지거니와 鐵은 비록 검으나 단련시키면 금을 이룬다네. 하물며 내가 받은 衷心이 바로 聖人の 마음임에랴. 어리석다 하여 스스로 저버리지 말고 明析하다 하여 스스로 풀어지지 말라. 그와 같이 함이 있으면 또한 그와 같아질 것이니, 어찌 賢愚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잘못하면 뉘우치어 이에 고치고 경계하며 이 밝은 天命을 항상 돌아보아 禮가 아니면 하지 말 것이다. 上帝께서 臨해 있으니 감히 공경히 하지 않겠는가. 이에 靈臺에 새겨놓아 마치 살얼음을 밟듯 깊은 연못에 이른 듯 하리로다.³²⁾

내 子夏를 그리워하노니 그 분은 싸워 이기셨다네. 내 卒대같이 굵은 마음 돌아보니 어떻게 하면 善해질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信으로는 쌓아서 城을 만들고 나에게 있는 義로는 갈아서 兵기를 만들며, 뜻으로 장수를 삼고 氣로 兵卒을 삼아 본성을 좀먹는 벌레와 마음을 해치는 벌레를 이겨내고 제거하여 德을 밝히리라. 진실로 싸우지 않을지언정 싸우면 반드시 이기리라. 이기기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오직 敬일 뿐이로다. 아! 小子들이여 이를 써서 기억할 지어다.³³⁾

32) 琴蘭秀: 『惺齋先生文集』 「座右銘」, 6-319-320. '人稟不齊, 有愚有哲, 允矣君子, 內銀外鐵, 嗟彼小人, 內鐵外銀, 銀者雖白, 埋之則昏, 鐵者雖黑, 點之則成金, 況我之衷, 則聖之心, 不以愚而自棄, 不以聖而自弛, 有爲者亦若是, 豈賢愚之有二, 過而能悔, 迺悛迺識, 顧諟明命, 非禮則禁, 上帝是臨, 敢不欽欽, 爰刻銘於靈臺, 如履薄而臨深.'

33) 韓山斗: 『秋月堂集』 「心戰箴」, 17-534-535. '我思子夏, 旣戰而克, 顧余蓬心, 其何能淑, 我之有信, 築以爲城, 我之有義, 礪以爲兵, 志乎爲帥, 氣乎爲卒, 伐性之蠹, 害心之賊, 是剋是去, 以明其德, 苟不戰也, 戰必勝矣, 勝之伊何, 惟敬而已, 嗚呼小子, 書以識之.'

끝으로 訥言愼行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항목은 두 번째 正心修身 중 修身에 포함되어질 성질의 것인데, 수신の内容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놀재가 따로 表章한 것이다. 箴은 다음과 같다.

一身禍福	한 몸의 禍와 福이
由爾樞機	너의 말과 행실로부터 말미암으니
有玷難磨	말과 행실의 흠은 같아 없애기 어려워
與白圭殊	白圭의 경우와는 다르도다
默訥以成	묵묵히 어눌함으로써 이루는 것이니
戰兢自持	삼가 조심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惟義之正	오직 義理의 바름은
坦周道砥	평탄하고 숫돌 같이 큰 길이거늘
舍此不由	이를 버리고 따르지 않는다면
遇坑觸茅	구덩이를 만나고 띠풀에 부딪쳐
自畏墜蹶	스스로 추락하거나 넘어질까 두려우리라.
知其所止	그 그쳐야 할 바를 알아
在家既孝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在國宜忠	나라에 대해서는 충성하여야 할 것이니,
克念克敬	능히 생각하고 능히 공경한다면
終焉久臧. ³⁴⁾	끝내는 길이 좋으리라.

訥齋라는 호가 퇴계 문하에 遊學할 적에 그의 타고난 성품이 어눌한 것을 보고 퇴계가 기뻐하며 '近仁한 자질은 아마도 자네일 것일세.'라고 격려한³⁵⁾데에서 유래하였음을 고려해 보면, 놀재의 인품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타고난 성품뿐만 아니라 평소의 생활에서도 訥言愼行의 실천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은 「繫辭傳(上)」의 '말과 행동은 君子의

34) 金生溟: 『訥齋集』 권1, 「元朝四箴: 訥言愼行」. (安東大學校 圖書館本)

35) 金生溟: 『訥齋集』 「序(柳道獻)」. 「訥齋先生金公, 早遊退陶老先生之門, 天賦素訥, 老先生喜曰, 近仁之質, 殆君乎, 既許以近仁之質, 則公之愼言行, 可知矣。」

樞機이니, 樞機의 움직임이 榮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³⁶⁾ 라는 말과 白圭詩를 거듭 외우는 것을 보고 孔子가 姪婿로 삼았던 南容의 예³⁷⁾, 그리고 正義에 부합하는 행실에 대한 경계 등을 통해 언행의 신중함을 일깨우는 위 잠의 전반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뒤이어 신중한 언행의 지극한 경지는 결국 집안과 나라에 대한 至善의 단계로까지 확충되어진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다. 즉 언행의 신중함을 자신의 인격을 닦는 중요한 계기로서 뿐만 아니라 齊·治의 핵심적인 요소로까지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治人에 앞서 그것의 근원으로서 修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퇴계의 학문적 성격과 상통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후 퇴계학과 학자들의 箴銘 가운데 訥言愼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修身에 包攝되어지는 성격인 탓인지, 양적으로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 역시 다른 항목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늘언신행에 대한 경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연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訥言과 관련해 「敬齊箴」의 「守口如瓶」이라는 구절이 작품 창작과 내용의 중요한 因素로 작용하고 있음은 지적해 둘 만하다. 원래 이 구절은 「防意如城」과 함께 宋代 명재상있었던 富弼이 80세 때 자리의 병풍에 써두었던 말로서 朱子가 「敬齊箴」을 지으면서 仍用하였고, 王栢(1197~1274)에 의해 敬齊箴圖가 그려졌다. 그리고 퇴계는 그것이 일상속에서의 敬 실천의 구체적인 조목과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聖學十圖』에 「夙興夜寐箴圖」와 함께 편입시켰던 것이다.(제9도 와 제10도) 그러므로 「敬齊箴」의 한 구절을 작품제목과 내용의 주요 계기로 삼아 箴을 창작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후대의 학자들이 퇴계의

36) 『周易傳義大全』 「繫辭傳(上)」, 「言行, 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也。」 (보경문화사 영인, 1983.) 579쪽 上左.

37) 『論語』 「先進」편, 「南容三復白圭, 孔子以其兄之子妻之。」

수기 위주의 治學之方을 실천적으로 계승·발휘한 점이라고 받아들여도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작품들의 일부를 제시해 두기로 한다.

…(전략)…내 들은바 적기는 하나 환란이 말 많음에 있다고 하네. 말의 허물 같아 없애기 어려운 것은 나의 허를 아무도 잡아주는 이 없어서네 자신이 함부로 하면 남들도 거슬리고 가는 말이 도리에 거슬리면 오는 말도 어긋난다네. 조급함과 경망함을 막고자 한다면 누구와 더불어 함께 들어가야 하나. 입을 세 겹 껴맨 것으로도 안되고 재갈 물려 막는 것도 마땅치 않으니 오직 瓶처럼 입을 막는 것이 죽히 내 스승으로 삼을 만 하다네.…(후략)…38)

…(전략)…禍가 모이는 이유 따져보니 이 하나의 구멍 때문이로다. 진실로 굳게 지키고자 한다면 그에 대해 무엇이 있을까. 瓶처럼 하라 하지 않았던가! 입 막기를 힘써 노력하여 새나가는 것을 쉽게 여기지 말고 뿔어 내기를 가법게 여기지 말라.…(후략)…39)

4. 맺는 말

본고는 퇴계가 『聖學十圖』로 집약해 표명해 놓은 修己 중심의 학문적 특성이 그의 제자와 後學들에 의해 전승·발휘되어진 양상들을 그들의 文集所載 箴銘類의 작품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퇴계학과 학자들의 修己指向의 性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되어진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해 온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러한 전승 양상이 갖는 의의를 되새겨 보는 것으로써 결론을 삼고자 한다.

38) 權省吾: 『東巖集』 「守口如瓶箴」, 29-221. '…曰余寡聞, 患在多言. 斯玷難磨, 朕舌莫捫. 已肆物忤, 出悻來違. 欲禁躁妄, 與誰同歸. 三緘不可, 箝制非宜, 惟瓶守口, 足爲我師. …'

39) 張緯恒: 『臥隱集』 「守口箴」, 45-335. '…究厥禍括, 由此一竇. 苟欲堅守, 於是何有. 不曰瓶乎. 閉口是務, 不易其洩, 不輕其吐. …'

먼저 道統觀과 관련해서 『聖學十圖』가 후대 학자들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다. 물론 퇴계 역시 당대의 다른 성리학자와 마찬가지로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子思·孟子로 이어지는 유학의 기본적인 도통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聖學十圖』에서는 「大學圖」를 제외한 나머지를 거의 宋代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의 저작을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학문적 관심과 특성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자신이 계승할 직접적인 학문의 원천으로서, 또 聖學의 실천적인 規矩로서 性理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도통과 관련해 『聖學十圖』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미묘한 機軸의 차이, 환언하자면 孟子 이전의 도통을 아우르면서도 性理學 中心으로의 변화는 이후 퇴계학과 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 계승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鶴川과 虎溪의 銘에 나타나는 서술초점의 차이와 揲省堂의 「座右銘」은 바로 그러한 퇴계의 관점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퇴계학과 학자들의 自己修養의 양상과 그 推移와 관련해서이다. 퇴계가 이미 『聖學十圖』를 통해 성리학의 敬思想을 핵심으로 하여 자신의 학문적 성격을 천명하였으므로 그 후학들 역시 居敬窮理, 下學上達이라는 성리학의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히 계승해 나간다. 그러면서도, 도통관의 경우에서처럼, 시간적 차이로 인한 성리학 수용의 爛熟度에 따라 그 중심 교의가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구체화·세분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格物致知가 讀書로 구체화되고, 正心修身이 心戰·銀鐵로 형상화되며 訥言慎行이 守口如瓶 등으로 세분화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瑣瑣한 것에 埋沒된 것이 아닌 한, 학문의 生活化·自己化(體認)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퇴계학과 학자들의 箴銘類에 나타난 자기 수양의 양상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체화·세분

화를 동반하는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관련해 첨언한다면, 원래 잠명류의 작품은 작자의 다른 詩·文과의 면밀한 조응작업을 통해 그 내밀한 면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온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작가 위주의 개별적인 고찰은 향후 연구과제라 할 수 있겠다.

〈도표〉

	생몰년도	문집명	작품	비고
金生溟	1504-1578	訥齋集	元朝四箴	安東大 도서관
朴承	1520-1577	鶴川集	勤箴,誠齋銘,勉窩銘,座右銘	退溪學資料叢書, 11책
琴蘭秀	1530-1604	惺齋先生文集	座右銘, 柳而見玉淵亭銘	退溪學資料叢書, 6책
曹光益	1537-1578	聚遠堂集	守成箴	退溪學資料叢書, 7책
金澤龍	1547-1627	揀省堂集	座右銘	退溪學資料叢書, 10책
黃暉(환심)	1544-1616	息庵集	素屏銘, 松木硯匣銘	退溪學資料叢書, 13책
韓山斗	1556-1627	秋月堂集	有備無患箴,心戰箴,避世箴	退溪學資料叢書, 17책
權益昌	1562-1645	湖陽集	進德箴,修業箴	退溪學資料叢書, 21책
郭진	1568-1633	丹谷集	辛夷杖銘,側柏枕銘,酒壺銘,瓢子銘	退溪學資料叢書, 22책
申適道	1574-1663	虎溪集	存養箴,省察箴,東壁銘,西壁銘	退溪學資料叢書, 24책
申達道	1576-1631	晚悟集	元朝自警箴, 力學箴	退溪學資料叢書, 25책
權省吾	1587-1671	東巖(先生文)集	守口如瓶箴,豊山鐘銘	退溪學資料叢書, 29책
李時明	1590-1674	石溪集	歲除自警箴,自警銘	退溪學資料叢書, 30책
吳溟	1591-1671	愚齋集	屏銘	退溪學資料叢書, 30책
柳元之	1598-1674	拙齋集	拙齋自銘,杖銘,南薰琴銘, 讀家禮箴,元日箴	退溪學資料叢書, 32책
申埰	1610-1672	忍齋集	聖學十圖銘, 大學銘,徽軒銘,止止軒銘	退溪學資料叢書, 34책
李渠	1613-1654	活齋集	防意如城箴,莫見乎隱箴, 酒箴,酒戒,韋帶銘,刀銘,硯滴銘,戶銘,蘇武節銘	退溪學資料叢書, 34-35책
南夢薺	1620-1681	伊溪集	石鼎銘,三寅劍銘	退溪學資料叢書, 35-36책
金啓光	1621-1675	鳩齋集	紙牕銘,短檠銘	退溪學資料叢書, 36책
李渠	1613-1654	活齋集	防意如城箴,莫見乎隱箴, 酒箴,酒戒,韋帶銘,刀銘,硯滴銘,戶銘,蘇武節銘	退溪學資料叢書, 34-35책

南夢寰	1620-1681	伊溪集	石鼎銘,三寶劍銘	退溪學資料叢書, 35-36冊
金啓光	1621-1675	鳩齋集	紙聽銘,短檠銘	退溪學資料叢書, 36冊
金昌錫	1652-1720	月澗集	事事乃有備箴, 元朝四箴, 琴銘, 漏閣銘	退溪學資料叢書, 45冊
張緯恒	1678-1747	臥隱集	讀書箴, 守口箴, 防意箴, 安分箴, 瘡箴, 食箴步履箴, 衾席銘	退溪學資料叢書, 49冊
申正模	1691-1742	二恥齋集	元日二箴, 窻窓箴存心箴, 自訟箴, 二獨箴, 獨行不愧影箴, 獨寢不愧衾箴, 自新箴, 至日箴示伯兒, 處困篤志箴寄伯兒, 二恥齋銘	退溪學資料叢書, 51冊
權濂	1701-1781	厚庵集	厚菴銘	退溪學資料叢書, 54冊
趙普陽	1709-1788	八友軒集	明倫箴, 盤銘, 孟銘, 几銘, 杖銘	退溪學資料叢書, 55冊
權正枕	1710-1767	平庵集	乙酉元朝自新箴, 古硯銘	退溪學資料叢書, 57冊
鄭來成	1744-1835	思軒集	自新箴, 新春十箴, 自警箴	退溪學資料叢書, 58冊
朴孫慶	1713-1782	南野集	泰鄉琴銘	退溪學資料叢書, 59冊
李道顯	1726-1776	溪村集	制羹齋箴	退溪學資料叢書, 60冊

【참고문헌】

『訥齋集』, 『鶴川集』, 『日休堂先生遺稿』, 『惺齋先生文集』, 『聚遠堂集』,
『操省堂集』, 『息庵集』, 『秋月堂集』, 『湖陽集』, 『丹谷集』, 『虎溪集』,
『晚悟集』, 『東巖(先生文)集』, 『石溪集』, 『愚齋集』, 『拙齋集』, 『忍齋集』,
『活齋集』, 『伊溪集』, 『鳩齋集』, 『月灘集』, 『臥隱集』, 『二恥齋集』,
『厚庵集』, 『八友軒集』, 『平庵集』, 『思軒集』, 『南野集』, 『溪村集』
(문집의 저자와 출판사항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하기 바람.)

李滉, 『退溪集』, 한국문집총간 29-31, 민족문화추진회, 1989.

김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윤사순, 『退溪哲學의 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_____, 『이황의 『성학십도』』, (한국사상연구회, 『도설로 보는 한국 유학』, 예문서
원, 2000.)

丁淳睦, 『退溪正傳』, 지식산업사, 1992.

퇴계연구소編,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서, 2004.

Abstract

Self-Cultivating Characteristics displayed in Exhortation and Inscription Works in Anthology of Toegye School Scholars

Kim, In-Cheol

This paper examines how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self-cultivation contained in Toegye's "Songhaksipdo(聖學十圖)" have been succeeded and displayed by his disciples and followers by studying exhortation and inscription works contained in the anthology of Toegye school scholars. The specific means of succession can be largely categorized into two areas. One is related to the idea of tao-tung(道統), and the other is the transfiguration of self-cultivation found in the scholars of the Toegye school. The former involved a transformation of the axis that accepts the fundamental tao-tung concept of Confucianism that extends from Yao(堯) to Mencius(孟子), and centers around Songnihak(性理學).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can be summarized as bearing the form of specification and subdivis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maturity of incorporating Songnihak and its core doctrine penetrated deeply into daily lives. In the case of the latter, if it can be regarded as something that is not buried in the trifle, i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as a sincere form of effort toward making academic activities part of daily lives as well as oneself.

Key Word

Toegye, Songhaksipdo, exhortation and inscription works tao-tung, self-cultivation, Songnihak, specification, subdivision